

구속기소 된 尹, 탄핵심판 정지 청구로 재판 지연 나서나

내란혐의 형사재판과 병행 이유 설 연휴 이후 보석 청구 나설 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법을 근거로 형사재판과 병행하게 될 탄핵심판의 정지를 청구하는 등 지연작전을 펼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형사 피의자인 윤 대통령=검찰 비상계엄 특별 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특수본)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배제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의 구속기소 결정에는 법원의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 불허가 크게 작용했다.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윤 대통령)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을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직권남용 등 혐의 배제와 관련,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등에서 단 한 차례 조사도 받지 않고 법

정에 서게 됐다. <재판 지연작전 나서나>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설 연휴 내내 변호인단을 접견하며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법원이 설연휴 이후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결정해 배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일단 보석 청구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 청구가 없다면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보석 청구가 인용되지 않고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기소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지연 전략을 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혐의로 기소됐다는 점을 내

세워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 정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법(제51조)은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가 중단된 것도 이 조항의 적용사례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51조는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현재가 대통령직을 권한대행체제로 장기간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고 해도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주 2회 변론'을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 당장 다음달 4, 6, 11일 증인신문이 출몰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의 중단도 요청할 수 있

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 2회 탄핵심판에 이어 형사 재판까지 이어진다면 방어권 보장에 무리라는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은 설 연휴가 끝난 뒤 보석 청구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탄핵심판이 진행돼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기간을 놓고도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구속만료 기간을 27일로 보고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지만,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은 구속기간이 경과했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현재까지 체포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시간인 아닌 일수 단위로 계산한 뒤 이를 구속 기간에서 빼 왔는데, 이는 잘못된 계산이라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월급 2.8% 늘 때 물가는 3.6% ↑ ... 금융위기 이후 최대 격차

근로소득 상승률 2년 연속 마이너스
근로자 월급 상승세가 2년 연속 둔화하고 소비자 물가는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과 물가 상승률 격차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전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귀속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332만원이었다. 4213만원이었던 1년 전과 비교하면 2.8%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2.3%)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근로소득 증가율은 2021년 5.1%까지 확대됐다가 2022년(4.7%)에 이어 2023년까지 2년 연속 둔

화했다. 2.8%의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3.6%)보다도 낮다. 근로자 월급이 '젤름' 느는 동안 물가는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2023년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6% 상승했다. 2022년 5.1%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랐다. 물가보다 월급이 적게 오르면서 근로소득과 소비자물가 간의 상승률 차이는 -0.8%포인트(p)를 기록했다. 2022년(-0.4%p)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다. 근로소득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밀든 것은 2009년(-2.0%) 이후 2022년이 처음이고, 이후 차이가 더 커졌다. 2023년 근로소득자의 전체 세 부담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022년 국회와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5000만원 이하 하위 2개 구간의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전년 대비 6만원(-1.4%) 감소했다. 다만 세 부담 완화 효과는 중·하위 소득자보다는 최상위 소득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 중 최상위 0.1% 구간 2만852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9억6004만원이었다. 이 구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3억32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36만원 감소(-5.2%)했다. 반면, 중위 50% 소득 구간 인원 20만8523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3302만원이었다. 이 구간 소득자들의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29만2054만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소방당국 등 긴급 대응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로널드 레이건 공항 인근에서 비행기 잔해를 살펴보고 있다. 여객기는 미국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워싱턴 DC로 향하던 중군 헬기와 충돌한 후 인근 포토맥강에 추락했다. /연합뉴스

美여객기, 軍헬기와 충돌 50여명 실종

워싱턴 레이건공항 착륙 접근 중 포토맥강 현상서 일부 시신 수습

미국 수도 워싱턴DC 인근 공항에서 소형 여객기가 군용 헬기와 충돌한 뒤 포토맥강에 추락해 당국이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CNN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오후 8시 53분경에 아메리칸항공 산하 PSA 항공 소형 여객기가 워싱턴DC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려고 접근하던 중 미 육군 블랙호크 헬기와 부딪히고 인근 포토맥강에 추락했다. 아메리칸항공은 사고 여객기가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우고 미국 중부에 있는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워싱턴DC로 가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사고 헬기에는 군인 3명이 타고 있었으며 고위직은 없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사고 현장에는 워싱턴DC 소방대와 경찰, 미군 등이 급파돼 대

규모 수색,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현지 당국은 밝혔다. 사상자 숫자는 즉각 파악되지 않았지만, 워싱턴포스트(WP)는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시신 여러 구를 경찰이 물에서 꺼냈다고 보도했다. 미국 CBS 방송은 현장에 있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날 밤 11시 30분 현재 최소 18구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생존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고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여러 기관이 지금 곧바로 대응하고 있다. 연방과 지방 사법당국이 현장에서 가능한 한 많은 생명을 구하려고 함께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은 계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여파로 로널드 레이건 공항의 이착륙은 전면 중단됐으며 이곳에 착륙할 예정인 항공기는 인근 볼티모어 국제공항으로 회항했다. /연합뉴스

올해 30세, 국민연금 예상액 현재가치 80만원

월급 300만원 기준... 1인 노후 최소생활비 59% 수준

올해 30세인 1995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에 도달해 받을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0만원 수준이라는 정부 계산이 나왔다. 1인 노후 최소생활비의 60%도 안 되는 수준으로, 청년층의 박탈감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급 300만원을 받는 1995년생이 26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개시연령인 65세가 되는 2060년에 받는 월 연금액은 304만원이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인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복지부가 계산한

결과다. 언뜻 보면 많이 보일 수 있지만 임금 상승률(3.77%)을 할인율로 이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0만 2000원에 불과하다. 할인율은 화폐의 미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비율이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들이 작년 12월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 136만1000원의 58.8% 수준이다. 1995년이 75세인 2070년에 받을 월 연금액은 67만5000원, 85세인 2080년 56만9000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20세인 2005년생의 상황도 비슷할 전망이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2005년생이 앞으로 27년

간 국민연금이 가입해 65세가 되는 2070년에 받게 될 월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1만2000원이다. 75세에 68만3000원, 85세 57만5000원을 받는다. 1985년생(40세)은 65세가 되는 2050년에 월 79만4000원, 75세에 66만9000원, 85세 56만3000원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최소생활비 수준은 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강선우 의원은 "노후 생계를 담보할 수 없는 국민연금은 청년세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며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는 확정적 수치가 아니라며 할인율과 미래 소득 변화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체계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중 앙

뭣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뭣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임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당 회사는 2024년 12월 24일 조합원총회에서 해산결의 하였으므로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한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1월 31일
플랜앤지니어링협동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15번길 16, 106동 205호 (매월동, 매월종합상가)
청산인 김현철

73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先州日報

• 지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통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약 222-8171
	• 양 신 571-7658	• 오 치 266-7801
	• 용 통 433-1503	• 우 신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명 222-9054
	• 중 통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0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통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용 명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은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	